

9월 19일 목요일 / 중앙아시아

에미르와 그의 가족은 이슬람에서 개종하여 지하 가정교회를 이끄는데, 지금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온라인 메시지 그룹을 만들어 에미르와 가족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기독교인을 마을에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그는 지역 경찰을 찾아가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와 가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께 힘을 얻어 사역을 계속하고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기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복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0일 금요일 / 인도네시아

2018년 5월 13일, 수라바야 지역에서의 교회 세 곳을 대상으로 벌어진 연쇄 폭탄 테러는 총 28명의 사망자와 57명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목숨을 잃은 네이슨(11살)과 이반(8살)의 어머니인 웨니는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본인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1일 토요일 / 예멘

예멘의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소수의 여성 신자가 교제와 친밀한 유대감, 따뜻한 격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기를, 참여하는 여성들이 진정한 교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2일 일요일 / 리비아

리비아는 사실상 현지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거쳐 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극심한 폭력을 마주하는 무법 상태의 땅입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할 중앙 정부가 없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과 조직범죄 집단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납치하고 일부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가에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9월 23일 월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2022년 말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무려 1,620만 명의 기독교인이 공격과 치안 불안으로 인해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향민 수용소는 종종 과밀하고 위생 상태가 열악하며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및 지방 당국이 실향민 수용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실향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24일 화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소레 목사와 그의 가족은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쫓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와 모든 부르키나파소 신자가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붙잡고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5일 수요일 / 멕시코

조직범죄의 증가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치아파스주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은 영토를 놓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마약 카르텔의 중요한 밀매 통로입니다. 작년에 카르텔 조직원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지역을 장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혼란스럽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카르텔은 납치하고 학살하며 강제 이주시키며 갇던데 대해 강제 지불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잔혹 행위가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9월 26일 목요일 / 방글라데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11명이 모이는 가정교회를 이끄는 알람 형제의 집 앞에 익명의 협박 쪽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살아남고 싶다면 신앙을 버리고 이전의 신앙(이슬람교)으로 돌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향력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 / 라오스

북부 산지 소수민족 마을에 사는 리봉(40대)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며 가족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친척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영혼들을 화나게 할 수 있으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여러 번 강요했습니다. 리봉 가족이 이를 거부하자 친척과 이웃들은 그들과의 소통을 중단했고, 마을 이장은 정부로부터 사회적 혜택을 받는 사람 명단에서 이들을 제외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비운 사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돌을 던져 지붕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의연했습니다. 가족을 박해하는 그의 친척과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9월 28일 토요일 / 필리핀

13살 제니는 오픈도어 문해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는 13개의 무슬림 부족이 있는데, 제니가 속한 부족은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합니다. 제니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정교회의 청소년 리더가 되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29일 일요일 / 에리트레아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언제든 수감될 수 있습니다. 수감되면 고문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질병에 걸려도 대부분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리트레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고 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9월 30일 월요일 / 한국오픈도어 설립 30주년 기념 선교대회

2025년 1월은 한국오픈도어 설립 30주년이 되는 달로 이를 기념하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로 오시는 에버트 슈츠 (Evert Schut, 전 오픈도어사역 총책임자)를 통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오픈도어 사역의 비전이 한국교회에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와 동역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중앙,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268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 이사야 60장 1~3절 -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9월 1일 일요일 / 북한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
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은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소규모
북송이 여전히 지속하여 이뤄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은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가혹한 처
벌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
에게 살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2일 월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는 아프리카 국가들
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생활 터전과 마을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우리 형제자매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며 이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극단주의자의 공
격으로 아내를 잃은 나이지리아 신자 마폴룰은 “트라우마 센터에서 보낸
며칠 동안 내면에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격을 갖춘 트라우마 치료 사역자들을 더욱 많이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3일 화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나이지리아에서 잔인한 공격을 당한 엘리사 목사는 오픈도어의 트라우
마 치료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용서했을 때 행
복감을 느꼈어요. 또한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에서 형제자매들이 치유받고 더욱 주님
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 중앙아시아

옥사나의 남편은 러시아에 갔다가 실종되었고 그녀는 홀로 세 자녀를 키
우며 시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
게 된 시어머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위협하
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은 제빵뿐인데, 이사해야 한다면 다른
집에 모든 장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도 그만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강해지고 시어머니가 그녀를 집
에서 내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 필리핀

7월 23일, 필리핀 남부의 한 마을에서 부족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무슬
림에서 개종한 신자들,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한 약 100가구가 안전한 곳
을 찾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대피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불화를 겪고 있는 부족들이 화해하여 다시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재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의 위
로와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6일 금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극단주의
자들의 습격으로 납치될 위험이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소년들은
극단주의자들의 살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강제로 소년병으
로 끌려가는 일이 흔합니다. 소년들은 또한 강제 노동을 위해 납치되거나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시편 91:4).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의 비
전을 품은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 니카라과

오르테가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을 정부의 적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개정
된 법은 교회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괴롭힘
을 당하고 체포되었으며 교회들은 혹독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침묵시키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픈도어 파트너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8일 일요일 / 알제리

거의 모든 기독교 예배 장소가 위협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
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예배 중 급습을 당한 교회를 위해 기도
합니다. 당국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배와 모든 주간 예배 모임을 중단하
라고 했습니다. 급습으로 충격받은 신자들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기
독교 공동체가 보호받고, 용기를 얻고,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들이 소그룹으로 지혜롭게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부가 종교의 자
유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앙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9일 월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각국 정부 지도자들과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
카에서 악화하고 있는 폭력을 인식하고 해결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연민과 신념을 가지고 긴급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교회
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있으
며, 아프리카의 교회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
리를 깨우소서! 아프리카의 가족들이 그토록 회복력 있고 기대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 / 우즈베키스탄

6월 25일, 우즈베키스탄 하원은 아동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 초

안을 첫 번째 심리에서 채택했습니다. 이 법 초안은 자녀가 18세 이전에 ‘불
법’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이를 허용하는 부모나 보호자에게는 1개월 평균
임금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5일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9월 11일 수요일 /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의 군사 작전에 의해 보코하람 테러단체로부터 331명(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이 구출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31명 중에는 치
북 소녀 이히 압둘(현재 27세)과 세 자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종
된 것으로 추정되는 106명의 소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들어주시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기
도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레아 샤리부를 비롯해 보코하람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치북 소녀들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기도합니다.

9월 12일 목요일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많은 곳에는 무슬림 묘지만 있고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묘
지는 없습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대한 ‘반
역자’로 여기는 기독교인을 무슬림 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매우 자주 반대
합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여성 하디자(75)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역 무
슬림 공동체와 친척들은 그녀의 시신을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큰 갈등이
있었고, 수도에서 온 교인들이 시신을 도시로 가져와 시립 묘지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기독교 신자인 고인을
매장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 / 인도네시아

무슬림에서 개종한 여성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한
후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어렵
게 만들고 이슬람교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에서는 이들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여성 훈련센터를 통해 재봉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참여하는 모든 여성이 이 기술을 통해 자신
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잘 꾸려가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9월 14일 토요일 / 이란

이란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기독교로 개종
한 사람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미나 카자비(60세)는 가정
교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테헤란의 예반 교도소에서 6년 형을 선고받고
북역 중인 개종한 신자입니다. 그녀는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끔 진통제만 투여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나 자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
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5일 일요일 / 이란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심인 자매는 신앙 때문에, 경찰이 집을 습격했고,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18년간 일한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감옥에
서 풀려난 후에는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이란을 떠날 수밖
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새 보금자리에
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녀는 오픈도어 제자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사역을 통해 이란의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
르치고 있으며 가정 교회를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녀의 영향력을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6일 월요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폴라니족 무장 세력과 다른 극단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
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
도합니다(마 5:44).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5,170명의 기독교인
은 신앙을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극단주의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남편 없이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미
망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기
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 / 이집트

기독교 박해가 심한 이집트 북부 지역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교회는
2,000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정식 건축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의 극단주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인
들을 죽이고 집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콥트교도
들의 집과 창문에 돌을 던져 파괴했고, 며칠 동안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
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 스리랑카

스리랑카 문화에는 조부모와 손주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서 이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밀라와 그녀의 6살, 9
살인 두 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교 신자인 외할머니한테 미움받고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같이 살고 있는 손주를 돌보지 않으며 교회에 갔다
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으며 아이들을 불교 센터에 보내라고 강
요합니다. 아밀라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진 거처를 찾고 있는데 좋은 거처를
잘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밀라의 두 딸이 비록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